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 강해

## 실제적 무신론자들

(시편 10:1 - 18)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편에 계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때대로 신앙과 삶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우환이 생기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 이론적 무신론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론적 무신론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 (시 14:1)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무신론자는 ‘악한 자’ (시 10:4)라고 했습니다.

### 1. 실제적 무신론자의 특성

#### (1) 교만

“악한 자가 교만하여” (2절).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면서도 교만하여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알고 모르는 사이에 행동과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욕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6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도무지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도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 (2) 변영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5절)

경건한 사람들은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매를 맞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멸망하기보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여 성공하며 변영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영은 그들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합니다.

#### (3) 안전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6절).

그들의 변영은 안전을 보장합니다. 세계 제 2차 대전 동안에 이탈리아의 못소리니는 총격을 받았으나 죽음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는 ‘총알이 나를 죽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보셨지만 곧 잊어버리셨고 그들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 (4) 악한 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7절).

실제적 무신론자들의 입에는 악하고 파괴적인 언어가 가득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롬 3:14)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바로 위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매우 잔인합니다. 사람들은 악한 행동 보다 악한 말을 과소평가 합니다. 그러나 칼이나 창 보다 더 아픈 상처를 만드는 것이 말입니다.

#### (5) 폭력

8-11절에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의 무서운 폭력이 언급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살인자, 사자, 사냥꾼의 공통된 특징은 거짓과 숨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숨어있다가 갑자기 폭력을 휘두릅니다(10절). 그러면서 이같은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잊으셨거나 얼굴을 가리시고 못 본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11절).

### 2. 의인을 위한 문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2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되 학대할 줄 모르고, 빼앗기되 빼앗을 줄 모르며, 미움을 받게 미워할 줄 모르고, 죽음을 당하되 죽일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잔인하고 오만한 무신론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착취당하며 서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14절).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14절).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편에 계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 3. 경건한 백성의 응답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이득을 취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에게 다윗의 응답이 12-18절에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손을 드옵소서, 잊지 마소서 라고 요청합니다(12절). 다윗은 불의한 일을 보았고, 그래서 그 희생자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을 보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나 마침내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종종 연기되고 있지만 다윗은 고난 받는 이들을 위로합니다(14절).

셋째, 다윗은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지상의 심판권이 왕 되신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심판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지를 이미 보았다는 것이 시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인간이 자기 분수를 넘을 때 전능자는 그들의 악을 꺾으십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극히 악한 세대가 올 것이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보다 빠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5 사명자 대회 1주 앞으로

## 모든 성도가 태신자를 잉태하도록

2005 사명자 대회가 1주 앞으로 다가왔다. 교회를 설립할 때 차가운 바다에 앉아 드리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서울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대치동 새예배당에 입당한 지 5년 만에 헌당까지 허락하시니 이번 사명자대회는 그 감사가 더욱 넘치고 있다.

2005 사명자 대회(본부장: 윤찬오 장로) 본부는 기도와 전도의 대회인 사명자 대회를 준비하며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도록 돕기 위하여 오늘 주보에 태신자 카드를 간지로 넣었다.

성도들은 태신자 카드에 전도할 이들의 이름 쓰

기 전, 먼저 간절히 이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난 후 이름을 적고 계속적인 기도와 전도로 태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한다.

태신자를 정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태신자 작성방법>

1. 가족 중 믿지 않는 이를 먼저 태신자로 잉태한다.
2. 일가친척 중에서 태신자 대상을 찾는다.
3.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 중 믿지 않는 이를 찾는다.
4. 이웃, 지인 중에서 태신자로 정한다.

# 2005 성경암송대회 임박

## 10월23일(주) 부서별 예선, 28일(금) 오후 7시 본선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될 2005 성경암송대회가 임박하였다.

10월23일(주)에는 각 교회학교 별로 예선을 치르고 여기서 선발된 이들이 28일(금) 오후 7시

602호에서 본선을 갖는다.

아직 시간이 한 달여 남짓 남은 만큼 많은 성도들이 주옥같은 말씀을 읽고 외워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기도한다.

# Vision 2020 운동본부 군선교 영수증후원회원 모집

비전2020 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보다 활발한 군선교사역을 위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벌이고 있는 군선교 영수증후원회원을 우리교회에서도 접수하기로 하였다.

군선교 영수증 후원회원제도는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구매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면 전산통계회사에서 물품구매에 관한 소비자 취향

을 조사, 마케팅에 활용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받게 되는 영수증 1건 당 2000원의 보상금액을 군선교비로 후원하는 사업이다.

후원을 원하는 성도는 비치된 안내문 뒷면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비전2020 운동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 중등부,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 가져

## 강석우 집사를 강사로, 10월 9일(주) 10:15분 501호에서

매일 둘째 주에 공과 외에 세상문화 바로보기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의 신앙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중등부에서 강석우 집사를 초청하여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한 강석우 집사

는 자신의 유-청소년기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며 이들에게 크리스찬 청소년으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관심 있는 학부모와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9월 새가족 환영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9월새가족 명단>

강경미 강예빈 강예선 강혜정 강희경 구옥수 권영석 권영순 권영희 권예진 김경화 김경희 김규현 김기석 김기석 김기주 김남윤 김대호 김선희 김예숙 김은미 김익서 김경희 김지우 김찬목 김준욱 김현성 김희경 김희옥 김희정 박병진 박성희 박수현 박영학 박용석 박정숙 박지현 서민지 성계동 오효철

유근호 유문정 유미혜 윤기에 이건우 이관우 이남희 이명숙 이순재 이윤재 이은준 이인순 이일훈 이재을 이정호 이지은 이평화 이한나 이한나 이혜나 임원규 임혜린 전수미 정보람 정소연 정현자 조가연 조라빈 조라혜 조범연 조채린 천소영 최승욱 최창진 하수정 한영숙 홍예희 홍진희 황혜련

이상 76명

# 그레이트 핸드벨 콰이어 단원모집

2부 예배 시 아름다운 핸드벨 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레이트 핸드벨 콰이어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음악적 재능과 찬양에 대한 열정이 있는 20세 이상 된 청년 남녀는 누구나 가능하다. 단원은 지휘자와의 면담 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9일 주일 오후 3시 504호 핸드벨 연습실에서 받는다.

# 제38회 메시아 연주회

지난 2003년 우리 서울교회가 주관하여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던 교회연합 메시아 대연주회가 올해에는 은누리교회 주관으로 12월 12일(월)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해 매주 두차례씩 연습이 있다. 참가문의는 제38회 메시아연주위원회 김수창 총무(011-9002-4592)에게 하면 된다.

# 서울교회 족구팀 강남노회 체육대회 우승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주최한 체육대회가 지난 24일 오후 2시 연북중학교에서 노회소속 10개 교회가 출전하여 족구 시합을 가졌다. 우리 서울교회 대표팀은 한 세트도 잃지 않는 완벽한 승리로 결승에 진출, 소망교회를 2: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여 우승기와 트로피, 푸짐한 상품을 수여받았다.





사명자 대회를 준비하며

# 2005 사명자 대회를 앞두고

## 윤찬오 장로 (2005사명자대회 본부장)



십사년 전 바벨론 강 버드 나무 위에 수급을 걸어놓고 우리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폭풍우와 찬바람 몰아치는 광야에서 갈 길을 잃고 유리방향하던 양떼를 불쌍히 여기

시사 호랩산 바위언덕 노현골의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무릎을 꿇게 하신 공훈의 하나님. 그 때 일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몸 되신 서울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은혜 중심,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될 것을 사명으로 응답받아 1991년 11월24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움을 받았습니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가서 제자 삼는 일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받은 사명자로서 경건과 거룩한 마음으로 해마다 우리는 교회설립 기념일 전 50일간 사명자 대회란 명칭 아래 국가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24시간 연속으로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우리민족의 75%를 2020년까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왔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 서울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서울교회의 하나님은 IMF의 어려운 시련의 고통도 전화위복의 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우리는 똑똑히 체험하고 목도하였습니다.

아!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거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교회, 아름다운 영광의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27일 헌당과 봉헌식을 앞두고 가장 영

광스럽고 뜻 깊은 2005 사명자 대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박찬 감격으로 소리 높여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구원과 은혜 받은 우리 모두 애굽을 탈출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의 간절했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자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개와 결단과 결심을 새롭게 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 인터뷰 ③,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를 준비하며

##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



11월 27일 (주일) 헌당감사예배와 함께 파송될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연재한다.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일부 이름은 가명으로, 사진은 실지 않는다. 이들을 위해 성도들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4. 캄보디아/이재율 선교사

이재율 선교사는 군 장교 출신으로 육군 사관학교를 거쳐 30년 가까이 군 복무를 해오다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해 대령으로 예편했다.

가족으로 박병진 사모와 슬하에 군복무중인 두 아들(건우, 관우)과 중국 유학생인 딸(한나), 이렇게 2남 1녀가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선교의 비전을 키워가던 이 선교사님은 지난 2001년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계기로 캄보디아 선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캄보디아는 인구 1300만 명의 95%가 불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인은 1% 정도에 불과하지만 기독교 선교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서 선교 여건이 주변의 동남아 국가보다는 나은 편이다. 이 선교사님은 특히 군 출신인 점을 활용해 캄보디아 군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미 수도 프놈펜에 선교센타를 지어 놓았고, 현지의 사역자들과 함께 인근의 군 부대 내

에 영어성경공부와 컴퓨터 교육을 위한 강사로 들어가 군인들을 만난바 있다. 육군 1여단 사령부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쳤고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였는데 조만간 캄보디아 국방부내에도 영어, 한글교육 과정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강의 수를 더욱 늘려 나가고, 마음 문이 열린 군인들은 부대 밖 선교센터로 나오게 하여 전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캄보디아군은 현재 약 12만 5천 명 정도가 있지만 이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군인은 불과 백여 명 정도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기도제목>

- 첫 사역인 캄보디아 국방부내 한글 영어교육, 1여단 기갑사령부내 사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 수도 프놈펜에 있는 마하남 선교센타가 지금은 캄보디아의 베이스캠프지만 장차 동남아 군 선교의 중심이 되어 동남아 각 나라의 기독 군인들과 연합해 복음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김민철 (편집부)

##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에 초대합니다



### 최학인 장로(교육 1국장)



우리 교회가 건축을 마치고 입당하던 날이 었그제 같은데 손뚱아 기다리던 헌당의 날이 바야흐로 목전에 와 있음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축제들을 진행하는 중에,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복돋고자 어린이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가 대상자는 우리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로서 10월 둘째 주일 1부 가족 예배를 마친 후 한티공원에서 대회가 열리게 되며 교육 1국 소속의 선생님들이 진행 요원으로, 또 재정 위원과 선임된 평가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수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

참가 대상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빈약한 자 구제-사랑의 헌혈을 마치고

# 생명을 나눌수 있으니...

헌당 감사 14대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주 1층 사랑부실에서 사랑의 헌혈행사가 있었다. 헌혈을 하기 위해 사랑부실에 들어갔을 때는 마침 예배가 끝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위해 줄 서 있었고, 방 저편에는 이미 헌혈을 시작한 성도들이 누워 있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신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빛진 자로서 사랑의 헌혈행사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생명을 사랑한다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헌혈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는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기도 했다. 잠시 후 간단한 혈액형 검사와, 혈액체크를 하고, 마침 비어있는 채혈대에 누웠다. 팔에 닿



은 튜브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피는 뜨겁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나이의 몸무게가 있어 피를 400ml를 뽑는다고 했다. 음료수 캔 하나를 채우고 조금 남는 양

이다. 이 정도 양으로 몇사람이나 살릴 수 있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뜨거운 피는 살아 숨쉬는 생명의 상징이다. 지금 이시간에 헌혈을 위해 누워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이웃에게 조금씩 나누고 있었다.

이번 헌혈에 동참한 사람들은 180명 남짓이고 그 중 헌혈을 할 수 있었던 성도들은 82명이라고 하니 새삼 우리 자신이 건강관리도 잘하여야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헌혈한 사람이나, 아쉽게 다음을 기약한 사람이나, 모두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모였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나누려는, 이런 마음들이 훗날 생명되신 주님을 나누고 진정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주명(편집부)

장로기정 탐방-박두영 장로 가정

##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박두영 장로님의 하루 일과는 새벽기도회 준비로 시작된다. 오전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교회로 와서 예배당 약한 조명을 켜놓고 음향실에 들어가 마이크를 조정하고 피아노 덮개를 열어놓는다. 벌써 2년째 매일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이 일을 섬기고 있다.

박 장로님은 "오허려 감사하죠.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은밀히 알아주시니까요..." 이 밖에도 장년 5부 교사와 은빛 찬양대장으로 섬기고 있다. 부인 전행자 권사님은 현재 2부 헌금위원과 나눔의 집 봉사, 70인 전도대 기도팀을 섬기고 있다.



두 분의 가족으로 큰아들 부부(박형수, 이정화 질사)와 손녀 연경, 손자 연준이 있고 둘째 아들 부부(박봉수, 김경희)가 있다. 박 장로님이 하나님을 영접한 때는 중학생 시절, 고모님을 따라 아버지 몰래 교회를 나가면서부터다. 처음엔 제사를 불참하는 모습을 보며 "조상도 몰라라"라는 어른들의 핀박을 받았고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그러나 장로님은 약 2년

간의 핍박을 견뎌낸 끝에 사실상의 승낙을 받아냈다. 부인 전행자 권사님도 62년 박 장로님과 증매결혼한 뒤 박 장로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장로님의 생애에 가장 큰 시련은 신앙을 가진지 몇 년 되지 않던 고교시절 위장병과 할병증을 앓을 때였다. 이때 장로님은 4년 가까이 루병을 하면서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드렸다. 그 결과 약을 먹지 않고도 깨끗이 낫는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되는 이사가 41장 10절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으시는 박 장로님은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즐겨 부르신다. "이제 제 나이 70이니, 여생을 서울교회 3대 비전을 위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가정을 가꾸고 싶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섬겨온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정이 장로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가정"이 되길 기도한다.

김민철(편집부)

### 2005사명자대회 전도분과 실행위원

김금준 김은태 이경구 최규초 이찬호 한상준 은기장 손영호 박이선 이인선 이혜순 주경자 심명숙 우상태 홍승전 원용범 박태선 각 여전도회, 남선교회 회장단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6일(목) 연세초찬기도회와 영동시찰회, 7일(금) 한기총신학위원회에서 즐기세포 연구에 관한 한국교회입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사: 1교구 김덕수 집사 원희숙 집사 은마@ 1교구 백도환 집사 석춘희 집사 대처3동 풍림@
- 주간식당 봉사: 권사회(10월2일) 빌립선교회(10월9일)
- 금주의 식사: 박찬성 성도 심명숙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 중국어 인터넷방송 - ( <a href="http://www.c-highway.com">http://www.c-highway.com</a> )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10월9일부터 50일간)기간동안 태신자 언도록
2.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3. 11월27일 헌당식, 암송필사성경봉헌, 선교사 파송 은혜롭게 되도록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세례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회오시는길

